

# 표준 화법의 요건과 보급 방안

김희진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 부장

## 1. 왜 ‘표준 화법’인가

### 1.1. 첫째 이야기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께서는 워낙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신답  
니다. 뒷동산에 올라 운동을 **하신** 다음 집에 **오셔서**는 마당에 있는 그 많  
은 화초에 일일이 물을 **주시고**…… .”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온 한 젊은 여성의 말이다. 그의 말을 계속 듣고  
있노라니, 난처해했을 방송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부는 동급이  
고 또 시청자 중에는 그 남편보다 연세 높은 분도 많은 만큼 남편을 지나치  
게 높여 말하지 않도록 출연자에게 분명히 요청했을 것이다.

남편에 대해 한껏 높여 공대하여 말하는 예는 갓 결혼한 20대의 젊은  
여성들한테서도 볼 수 있다. “그이는 판단력이 **좋으시고** 창의적이셔서  
윗분들의 인정을 받고 **계세요.**” 등.

얼마 전 회의 날짜에 대해 협의하고자 몇몇 위원 댁에 전화한 적이 있

었다. 위원들의 부인들하고는 자주 전화도 하고 만난 적도 있는 사이다. 그런데도 부인들은 “오늘 약속이 있으셔서 좀 늦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시면 말씀드릴게요.”와 같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 물론 전화하는 상대가 손아랫사람이거나 누군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끝마다 남편을 떠받드니 듣기에 거북했다.

그러다가 어떤 부인의 응답에 귀가 번쩍 뜨였다. “약속이 있다고 급히 나가면서 한 30분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국립국어연구원에 **전화하도록 제가 전할게요**.” 이 부인의 말이 봄의 들녘 바람처럼 신선하게 느껴졌다. 부부는 서로 간에는 존대하면서도, 그 사이는 무촌(無寸)이므로 남에게 말할 때에는 자기를 낮추듯 남편도 낮추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예의일 듯싶다.

## 1.2. 둘째 이야기

‘아빠’는 곤란하다

자기 남편에게, 또는 남편을 남에게 ‘아빠’라 불러도 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표준 화법을 다루는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결론은 ‘곤란하다’로 나왔다.

한 원로 학자는 남편을 ‘아빠’로 부르는 버릇이 외국에서 온 것 같다고 말한다. 이웃집에 부너지간으로 보이는 남녀가 살았다. 젊은 여자는 함께 사는 남자가 자기 ‘아빠’라고 답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의 ‘남편’이더라. 남이 뭔가 미심쩍게 생각할 만한 부부 사이에서 여자가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을 법한데 한국에서 이 말을 들여와 연유도 모르는 채 쓴다는 것이다. 다른 학자는, ‘영철이 아빠’처럼 아이 이름 뒤에 ‘아빠’란 말이 붙었던 것이 아이 이름을 빼고 간단하게 ‘아빠’만 남은 말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전통 예절 연구가는 자기를 낳아 준 ‘아버지(아빠)’란 말을 남편에게 쓴

다는 것은 예의 문제를 넘어 존속(尊屬) 모독이며 인륜을 문란케 하는 일이라 하였다. 국어학자들 역시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아빠’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그리하여 뜻 있는 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남편을 ‘아빠’로 부르지 않도록 계도(啓導)해 왔다.

방송국에서도 여성 출연자에게 친정 아버지는 ‘제 친정 아버지’로, 남편은 ‘제 남편’으로 구분해서 사용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한다. 출연자는 그러마고 하고서도 마이크를 잡기만 하면 남편에 대해 ‘아빠’를 무의식적으로 연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방송 도중에라도 말을 고쳐 줄까 하여 “‘아빠’라고요? 사회자는 혹 친정 아버님이신가 생각했습니다만” 하고 눈치를 줘도 끝내 ‘아빠’ 소리를 못 고칠 때에는 방송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토로한다. 말이 아무리 시절 따라 변한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아빠’를 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아버지와 남편을 ‘아빠’라고 한데 묶어 부를 수는 없잖은가.

### 1.3. 셋째 이야기

#### 명령하며 절하고

큰일 치르는 날,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손아랫사람들은 으레 웃어른께 절을 올린다며 자리에 앉기를 청한다. 웃어른이 이내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아, **어서 앉으세요**, 어서요. 여기예요.” 하며 반강제로 지정한 자리에 끌어다 앉히고는 넘죽 절하고 나서야 자기 임무를 다했다는 듯 후련해한다. 웃어른 쪽은 아랫사람의 명령을 받아 가며 절을 받는 신세가 된 셈이다.

그 집 사위는 자기 아내의 아버지를 가리켜 ‘**빙장 어른**’이라며 남의 장인에게나 쓸 존칭을 버젓이 쓴다. 그러고는 ‘이 정도면 장인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했지’ 하며 흐뭇해한다.

부엌 쪽에서는 안주인이 음식 준비가 끝났다고 손아래 시누이를 부른

다. “**고모**, 이제 상을 차려도 될까요?”

한 상 푸짐하게 올린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다. 이윽고 상을 한 쪽으로 물리고 환담을 나누던 손님들이 밤이 깊어지자 일어나면서 주인에게 “**실례합니다.**” 하고 말한다. 방문객들이 현관으로 가다가 부엌 쪽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치기를 잊지 않는다. “**수고하세요.**”라고.

절은 앉으라 말라 하는 말 없이 — 물론 절을 하겠다는 의사는 은연중 나타내야 할 것이다 —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이 보기에다 아름답다.

처의 부모는 ‘장인·장모’, ‘아버님·어머님’으로, 손아래 시누이는 ‘아가씨·아기씨’로 부른다는 것을 몰라서였을까? 처의 부모에 대한 호칭어는 공연히 어려운 용어를 쓰려다가 실수한 예고, 손아래 시누이에 대한 호칭어는 웬지 어색해서 아이에게 기대어 쓰려다가 실수한 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직 일이 안 끝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신이 남보다 먼저 자리를 뜨려 할 때라도 ‘실례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마땅치 않다. 당연한 것을 하는데 실례가 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 먼저 갑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면 된다. 위의 경우는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야 했다. ‘수고하세요’도윗사람에게나 조심스러운 사이에서는 쓰기 어려운 말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다.

위의 세 이야기를 통하여 말하기에는 법도와 질서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데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말하기의 지침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이 욕구를 충족하면서 전통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바르고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표준 화법’이 아닌가 한다.

## 2. ‘표준 화법’이라는 것

### 2.1. 선인(先人)들이 본 화법

말은 인류와 더불어 생겨나 인류와 공존해 온 오랜 문화재다. 그리하여 인류만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의식이 태곳적부터 이미 싹터 왔음은 당연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선인들도 문집 등에서 말에 대해 기회 있는 대로 언급하였다. 이 율곡(李栗谷)은 의젓한 자세로 간결하며 신중하게 말할 것을 일렀고(『격몽요결(擊蒙要訣)』), 이덕무(李德懋)는 기품 있는 태도로 차분하게 요점만 분명히 말하되, 꺾속말이나 뒷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사소절(士小節)』). 특히 정약용(丁若鏞)은 덕행, 정사(政事), 문학과 함께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국 당나라 때의 관리 선출 기준인 ‘신언서판(身言書判)’이 몸가짐[體貌], 글쓰기[楷法], 판단력[文理]과 함께 언사(言辭)를 그 요건으로 삼는 예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언행이 그 인물의 학문이나 학식,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 구실을 오랫동안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여사서(女四書)』, 『내훈(內訓)』 등을 통하여 여성의 화법—이 속에는 목소리, 말의 내용, 태도 등도 포함된다—에 대해 계도하였다. 그만큼 언어 예절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갑오경장 이전, 한문 중심의 교육에서 중심 교재 구실을 해 온 사서(四書)에서도 언어에 대한 대목이 『논어』에서 33예, 『맹자』에서 13예, 『대학』에서 1예, 『중용』에서 3예가 보인다. 『소학』에도 언어의 중요성이 적잖게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말’에 관한 것이 아흔 항목에 이른다든 사실은 말에 대해 선인들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여 왔는가를 말해 준다. 속담은 언어의 중요성(입이 보배, 一言重千金), 능변의 효용(천 냥 빛도 말로 갚는다), 말의 위력(입이 여럿이면 쇠도 녹인다), 언행 일치 강조(말이 앞서지,

일이 앞서서 사람 본 일 없다) 등을 나타내고 있다.

말하기에 대한 우리 선인의 가르침은 신의(信義) 있게 말하기, 신중하게 말하기, 예절에 맞게 말하기, 진실하게 말하기 등으로 요약된다. 지금도 전통 있는 집안에서 하는 말씨에서는 기품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선인의 말씨가 상당히 정중하고 말 하나라도 신중히 골라 했음을 증명한다.

## 2.2. 표준 화법의 조건

표준 화법<sup>1)</sup>이 지녀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표준 화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화법은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상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처한 상황에 그 화법이 적절하여야 하고 누구에게나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법이 정확하고 분명하여 화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화법에는 말하는 이의 정성과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감동케 한다. 아무리 화법에 맞는 말이라도 정성과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말은 형식적이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정신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셋째, 화법은 쉽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언어 예절의 대원칙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되 지나치지 않게 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 자신의 뜻을 쉽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여야만, 애환을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뜻을 쉽게 전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화법이 그럴 듯하다며 덮어놓고 선불리 따라갈 수는 없다. 우리의 감각이나 습속에 맞지 않으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거북하다. 예절은 행동의 규준(規準)이므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지나치게 공손한 것은 예에 맞지 않으므로 사회의 관습에 맞춰 인간 관계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

---

1) 참고로 이 글에서는 ‘화법’, ‘표준 화법’, ‘언어 예절’을 큰 의미 차 없이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넷째, 화법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표준 화법을 정해 놓기는 했는데 언중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한 화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든지, 지나치게 앞서 나갈 때 언중은 선뜻 따르지 않는다. 화법을 정하기 전에 언중의 욕구나 감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2.3. 화법도 변한다

표준 화법을 정할 때에는 시대적인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옛날의 깎듯한 언어 예절이 좋았으니 과거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몰아가면 무리가 따른다. 옛 예법 중에는 오늘날에 와서 맞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옛 법식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과거의 좋은 예법의 의식(儀式)이나 형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깃든 기본 정신을 잘 살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가족 제도가 바뀌어 전통 화법이나 예절을 계승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그런 과정을 이미 겪은 서양 여러 나라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화법 교육을 병행해 왔다. 학교 교육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가정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화법 교육을 강화하여 성공을 거둔 예도 있다. 우리도 가정과 학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바람직한 예절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대만의 언어 예절이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과 예절, 즉 번문옥례(繁文縟禮)로 기울어진 데 대하여, 대륙에서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경어 표현이 줄어들어 대조적이라 한다. 서양 역시 옛날에는 왕실, 귀족, 평민, 천민 등이 사회 계층에 따라 쓰는 말씨가 다르고 계급 차이에서 오는 경어법이 달랐지만 평등 사상이 실현된 오늘날에는 신분 차에 따른 경어 차이도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말은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소위 ‘코드’가 맞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깔고 가다듬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대의 고금(古今)이 다

른 것과 마찬가지로 예절의 행함도 실정에 알맞게 참작할 바가 있는 법이라는 정약용의 말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 3. 표준 화법 알리기

#### 3.1. ‘감사하다’는 어디에

‘감사하다’인가, ‘감사드리다’인가? 일상에서 제법 많이 쓰일 법한 ‘감사하다’, ‘감사드리다’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이는지 알아보려고 금년 2월 26일부터 3월 14일 사이의 주요 종합 일간지를 찾아보았다<sup>2)</sup>. 아래의 자료는 ‘감사하다’를 취한 용례들이다. 몇 예를 찾을 수 있었으나 ‘감사하다’가 그다지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 학생: 노 대통령은 이어 3학년 김진희 양(16) 등 학생 32명으로부터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략)”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동아일보 3. 14.)
- 일반인: 조순임 씨는 “(중략) 나를 살려 준 박종만 씨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문화일보 3. 13.)
- 종교인: 박 목사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의 총무라는 중임을 맡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며(국민일보 3. 10.)
- 동포: 선뜻 시설 이용을 허락한 고려신학대학원 측에 **감사합니다**.(중앙일보 3. 11.)
- 작가: 독자님들 **감사합니다**.(조선일보 3. 14.)
- 전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3. 11.)

이번에는 ‘감사드리다’를 찾아본다.

- 일반인: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조선일보 3. 1.)
- 도지사: 이원중 충북지사는 (중략) “청남대를 조속히 개방토록 해준 노 대

2) 용례는 핵심적인 것만을 보이고자 문장의 일부는 끊어 버렸음을 밝힌다.

- 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힌 뒤(세계일보 3. 7.)
- 장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행정 부처 장관 축사, 다수)
- 대통령: 노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먼길을 마다 않고 찾아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이 **감사드린다.**”며(세계일보 2. 26.)
- 기업인: 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는 대통령의 (중략) 특히 개혁 추진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중앙일보 3. 11.)
- 종교인 1: 탁연 스님은 (중략) “비구니를 부장에 임명한 총무원장 스님에게 비구니의 일원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문화일보 3. 6.)
- 종교인 2: 늘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국민일보 3. 9.)
- 교사: 아이들의 45장이나 되는 편지에 귀찮아하지 않고 봉투에 일일이 이름을 붙여서 보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한겨레 3. 3.)
- 교수: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저서 머리말, 다수)
- 음악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동아일보 3. 12.)
- 소설가: 이러한 장(場)을 마련해 준 중앙일보에 **감사드리며.**(중앙일보 2. 28)
- 소설 작품: 그동안 장군님의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문화일보 3. 10.)
- 신문: 재산 리모델링 코너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중앙일보 3. 11.)
- 방송: 이 밖에 성금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SBS방송, 3. 12.)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문화방송, 한국방송 2. 27.)

위의 자료는 일상 생활에서 표준 화법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보급되어 잘 쓰이고 있는지를 알고자 조사한 결과이다. ‘감사드리다’가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매우 많이 나타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반 성인, 교사, 교수, 장관, 작가, 언론인 할 것 없이 두루 ‘감사드리다’를 많이 쓰일 수 있다. 표준 화법에서 표준형(권장형)으로 채택되지 못한 ‘감사드리다’가 매우 큰 세력으로 쓰이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말의 예절』의 머리말에서조차 ‘감사드

리다'로 쓰여,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감사’나 ‘축하’는 ‘드린다’는 말이 어법상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대라는 점을 자문 위원들은 한결같이 지적하였다.”라는, 같은 책의 언급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하기는 ‘감사드리다’의 홍수에 파묻혀 평소 쓰던 말을 머리말에서 얼떨결에 쓴 것이리라. 정말로 지켜지지 않는 말이 ‘감사하다’다.

여기에 이르면 표준 화법인 ‘감사하다’보다는 ‘감사드리다’를 써야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국민 대다수의 뺏속 깊이 박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이 정한 화법을 대중이 지키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 까닭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표준 화법을 제정한 사람이나 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얼마만큼 다가가서 표준 화법을 알려 왔는지, 일반 국민이 표준 화법이 있는 줄이나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준 화법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표준 화법을 알려야 할 것인가?

### 3.2. 아이 화법은 부모 작품

弟대子조 | 드러는 곧 효도하고 나는 곧 공순하며 삼가고 민비 하며(배움의 길에 있는 이는 집에 들어와서는 곧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곧 어른을 공경하고 온순하게 대하며, 언행을 조심하고, 미덥게 하며. 小學諺解 선조판 권 1:16, 띄어쓰기와 구두점은 필자)

『소학언해』의 한 대목이다. 화법 교육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정성 들여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에서 그 다음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예절 지키는 일을 생활화하여 태도나 말씨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 한 단계에서 밟아야 하는 발달 과업을 제대로 마쳐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학교나 사회에서 발달 과업을 수행하려면 그 전의 발달 과업을 완성해야만 한다.

어린이가 소학(小學)에 들어오면 ‘소쇄응대진퇴지절(掃灑應對進退之

節)’을 익히게 된다(『大學』章句序). 물 뿌리고 쓸고, (어른이 부르시면 공손하게 행동하며)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절차 등이 모두 그 속에 담겨 있다. 여기에서 ‘응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언어 예절이 몸에 배어야 하니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가정에서 부모는 조용조용하게 신중하게 말하도록 자녀를 가르쳐 실수가 없게 하였다. 말 자체도 직설적이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어른에게는 명령형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요즘 핵가족만이 사는 가정인 경우에 부모가 전통적인 집안에서 정식으로 화법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그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겠지만, 부모 자신이 언어 예절을 잘 모르면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그래서 화법 교육이 어려워진다.

프랑스에서는 딸이 시집갈 때 어머니가, “지참금을 많이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프랑스어를 잘 가르쳤습니다.” 하며 사돈에게 말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늘어놓을 것 없이 자식에게 국어 화법을 똑바로 가르쳤음을 첫손에 꼽는 자랑거리로 당당히 밝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3.3. 교사는 화법 전문가

가정에서 어느 정도 언어 예절을 몸에 배게 한 다음, 학교나 사회에서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유치원에서도 자기 소개나 인사말을 할 수 있어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화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도 예절 교육을 하기는 하겠지만 미술, 음악, 무용 등의 예능 교육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회에 나가서 이웃과 사는 데에 불편이나 충돌이 없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화법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기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화법 교육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로만 일러 주어서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

는 화법 내용을 담은 동요 부르기, 화법을 소재로 한 만화 읽기, 화법 알아맞히기 놀이 등을 통하여 화법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익히게 해야 한다. 기본적인 언어 예절이 몸에 배도록 해 놓아야 나이 들어서도 실제 상황에 맞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오게 된다. 어릴 때부터 화법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 결과를 학생 성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중국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예절 바른 언어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다. 학교의 국어과 교육에서 말하기 듣기 시간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돌아볼 시점이 되었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 표준 화법은 어느 정도 다루고 있을까? 중학교의 경우 『생활 국어』 1-2(교육 인적 자원부) 부록에서 ‘표준 호칭어’라는 이름으로 4면 남짓 실렸고 일부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의 부록에 호칭어·일상생활에서의 인사말, 특정한 경우의 인사말이 6면 가량 실려 있는 정도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으로 나뉜 국어과의 영역 중 말하기 분야에서 표준 화법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 활동 내용 중 표준 화법과 관련지를 만한 대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말하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초등학교 1학년)
- 화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초등학교 3학년)
- 말하려는 내용과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 어조로 말한다.  
(초등학교 4학년)
- 예절 바르게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초등학교 4학년)
- 말할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초등학교 5학년)
-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초등학교 5학년)
-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투로 말한다.(중학교 1학년)
- 말하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중학교 3학년)
-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말한다.(고등학교 1학년)

종래의 타성에 따라 읽기 중심에서 벗어나 말하기 시간도 그 중요성에 따라 제5차 교육 과정부터 어느 정도 배정한 것이니만큼 이들 목표를 이루

도록 교사는 수업 시간에 말하기 교육을 충분히 해야 한다.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도 표준 화법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실제 수업에도 충실히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언어 예절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말하기 교육에서 표준 화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국어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시간에,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교사가 학생에게 다가서서 정성껏 표준 화법을 가르쳐야 한다. 모든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화법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 학생들은 언어 예절을 지키려 해도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일러 주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훈련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예절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간이 사회 구성원의 하나라는 인식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언어 예절이 사회적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사회화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교육 활동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을 돕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정, 학교에서 화법 훈련을 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인사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자마자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야지 한참 생각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3.4. 모든 이가 제 몫 다하기

사회 구성원으로서 언어 예절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함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자신이 사회에 봉사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예절이란 자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사회가 잘 움직여 나가도록 언어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구성원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리라. 바람직한 화법을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 그 내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첫째, 남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올바른 언어 예절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에게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사람들 속에는 부모나 교사는 물론이고, 적어도 성인으로 대우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의무를 져야 할 것이다. 혹 예외에 어긋나는 사례를 보면 그때그때 서로 지적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집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사회에서는 성인이 일상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둘째,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단체가 공문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교육용이나 공공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 광고물 등을 작성할 때에도 표준 화법에 따라야 한다. 신문, 방송, 출판물 등의 대중 매체도 당연히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개인과 회사 등이 작성하는 사문서도 공공성을 띠는 경우라면 표준 화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언론인 교육을 강화하여 표준 화법 구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하여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올바른 표준 화법을 국민의 일상에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인은 전 국민의 화법 교사가 되는 셈이다. 전문 아나운서와 기자를 채용할 때 화법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언론인이 승진할 때 표준 화법 능력 보유자가 우대받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다. 방송·신문 등 언론 보도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아나운서·기자의 언어 습관이 국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방송사별로 아나운서실과 같은 데서 일정 기간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 이때 국립국어연구원과 손잡고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방송 작가와 사회자는 물론, 텔런트·개그맨·가수·그 밖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언어 예절에 잘 맞는 방송과 보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신문 언어 검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부적절한 말이 이미 보도되거나 방송된 이후에는 시정하기 곤란하므로 미리 국어 전문가의 감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작가나 아나운서의 원고 등이 표준 화법에 맞는지 미리 전문가의 감수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방송사별로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다.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표준 화법으로서 적절한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하여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직원 교육과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언론인이 한 말이나 쓴 글이 어문 규범이나 표준 화법에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민 계몽을 위한 화법 프로그램과 지면을 확보해야 한다. 어렵게만 인식하고 있는 화법을 더욱 친숙하게 사용하도록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국어를 소재로 한 문제 풀이 대회를 열거나, 화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언을 듣거나, 언론사 주관의 화법 지키기 운동을 벌인다. 퀴즈 프로그램의 문항 중에 표준 화법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밖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표준 화법을 포함하여 정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문화학교 과정에 언론인 대상의 특별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 과정에 표준 화법을 포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신입 사원 교육과 사원 재교육 등을 원내에서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고, 한국언론재단과 같은 방송·신문 단체의 교육 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에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어문 규정과 함께 표준 화법을 실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3.5. 교본이 필요하다

표준 화법을 배우려는 사람이나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바른 언어생활을 담은 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바른 언어 예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규범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교본이 필요한 것이다. 정형화한 교본이 바탕이 되어야 가정 교육, 학교 교육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예절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본을 만들어 보급한다. 서양에서 대학생에게 좌우명으로 삼는 책을 들라면 『성경』과 『화법 교본』을 꼽을 정도로 『화법 교본』이 가까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예의를 쉽게 익히면서 이를 중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언어 예절을 포함한 예절, 예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알려 주는 교본이 별로 없다. 언어 예절을 포함한 예절을 지키려 해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가르쳐 주는 곳도 없으니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예절 지키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 어른에게 물어올 때 교본을 참고하여 대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편찬한 『우리말의 예절』(1991)이 한 교본이 되지 않을까 한다. 가정에서, 직장 사회에서 부르는 호칭어와 가리키는 지칭어, 경어법, 일상 생활에서 쓰는 인사말, 특정한 경우의 인사말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앞으로 이를 독자의 연령이나 학력에 맞추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익혀 쓸 수 있도록 더욱 고심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웃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투에서 그 됃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말은 곧 사람’이며 ‘마음의 그림’이라고 한다. 말이 바로 설 때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꽃에 향기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에는 예절이 필요하다. 예절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서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말과 예절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빚어질지를 생각해 본다. 지식 정보 산업과 매체가 발달할수록 ‘평화’와 ‘공존’이라는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문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모든 문화 생활의 바탕이 되는 언어에 진심과 정성을 실어 이웃 간에 주고받을 때 행복한 삶도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예절을 행함은 우리의 행위를 사회에서 공인된 규범에 부합하게 함이요, 바른 생활은 선(善)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강신항(1986), 「近來의 呼稱 使用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7호, 서울 : 국어연구소.
- 강신항(1989), 「오늘의 言語 生活 一面」, 『국어생활』 제19호, 서울 : 국어연구소.
- 교육부(1998),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립국어연구원(1992), 『표준 화법 해설』
- 김민수 외(1987), 「예절 바른 언어 생활(좌담)」, 『국어생활』 제10호, 서울 : 국어연구소.
- 김종권 譯註(1987), 『女四書』, 서울 : 明文堂.
- 김희진(1997), 「꿈돌」, 『서울신문』(현 대한매일), 서울 : 대한매일신보사.
- 박갑수(1983), 『우리말의 虛像과 實像』, 서울 : 한국방송사업단.
- 박영순(1988), 「바람직한 언어 교육」, 『국어생활』 제12호, 서울 : 국어연구소.
- 성기철(1991), 「국어 경어법의 일반적 원리」, 『새국어생활』 1-3,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 이규순 校註(1983), 『女四書』, 서울 : 문학세계사.
- 이기문(1997), 『俗談 辭典(개정판)』, 서울 : 일조각.
- 이을환(1975), 「論語의 言語 意識에 대한 意味論的 研究」, 『亞細亞女性研究』 15.
- 이을환(1976), 「士小節 연구 : 士典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논총』 28.
- 이을환(1980), 『國語의 一般意味論的 研究』,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을환(1999, 遺稿集), 『한국의 여성 언어』,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용백(1987), 「言語 禮節」, 『국어생활』 제10호, 서울 : 국어연구소.
- 이용백(1988), 『續 國語教育史 研究』, 서울 : 신구문화사.
- 전영우(1985), 『國語 話法』,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 조선일보사, 국립국어연구원 편(1991), 『우리말의 예절』, 서울 : 조선일보사.
- 한상갑 역(1977), 『孟子』·『大學』 서울 : 삼성출판사.

<자료>

李德懋, 士小節, 『靑莊館全書』(上·中)

士小節 『靑莊館全書』上·中 所載, 서울大 古典叢書刊行會.

國譯 『靑莊館全書』卷之二十七~一卷之三十一, (士小節) 고전국역총서  
189, 민족문화추진회.

昭惠王后 編, 『內訓』

李栗谷, 『擊蒙要訣』

『內訓·女四書』(影印本), 亞細亞文化社.

『明心寶鑑』

『易經』

『論語』

『小學諺解』